



일본 생명보험회사의 해외채권투자 확대 계획과 시사점

채원영 연구원

- 최근 일본의 4대 생명보험회사들¹⁾이 해외채권 매수확대 계획을 밝혔는데 해외투자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엔저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고, 유로존 국채투자가 확대될 경우 유로존 우려 채부각 및 환율변동성 확대 시 자산운용수익률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었음.

- 일본의 4대 생명보험회사들은 FY2013년 자산운용계획에서 해외 채권투자를 증가할 계획임을 밝혔음.
 - 일본보험협회에 따르면, 일본 보험산업은 총 운용자산의 44% 정도를 일본 국채에, 15%는 해외 채권과 주식에 운용하고 있으며 해외투자는 주로 국채가 대부분임.
 - 일본생명은 일본 국채 매입을 줄이고 해외 채권투자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정하였으며 저금리가 지속된다면 확대 규모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밝힘.
 - 일본생명은 1조 엔 규모의 일본 장기국채 매입계획을 수정하여 해외채권과 만기가 긴 회사채를 매입할 계획이고, 특히 해외채권은 금리·환율 수준을 감안하여 투자자금을 조정할 것이라고 언급함.
 - 스미토모 생명보험은 FY2012년도에 이미 해외채권 규모를 증가시켰으며 향후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국내채권보다 해외채권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힘.
 - 한편 스미토모 생명보험은 FY2013년 자산운용계획에서 국내채권의 규모를 늘릴 것임을 언급하였으나, 이는 일본 국채 금리의 수준을 고려하여 진행될 것임.
 - 메이지야스다생명은 5,000억 엔 규모까지 해외채권 투자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언급하였으며 미쓰이생명도 500~600억 엔 규모의 해외채권을 추가 매입할 계획임을 밝혔고, 후코쿠 생명은 400억 엔 규모의 해외 투자를 증가할 계획임.

1) 일본생명, 제일생명, 메이지야스다생명, 스미토모생명.

■ 전문가들은 일본의 해외투자 확대는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위기국의 금리를 안정시키는 순기능도 있으나, 해외투자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엔화 가치 하락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

- 전문가들은 일본의 해외투자는 일본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맞는 것이라고 평가하였는데, 그 이유는 기업 대출이 늘고 고수익 자산으로 자금이 이동하면서 경기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임.
- 또한 유로존 등 위기국에 대한 채권 투자 확대는 위기국 금리를 안정시켜 유로존 금융 불안을 완화시킬 수도 있다는 평가도 있음.¹⁾
 - 엔저 현상이 부각된 2012년 하반기부터 일본은 유로존 채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였는데 이는 위기국 금리를 안정시켜 유로존 금융불안을 완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었음.²⁾
- 그러나 일본의 해외투자가 장기화될 경우 엔저 현상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큼.
 - 2013년 5월 1일 종가 기준으로 일본의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0.586%를 기록하였으며 엔·달러 환율은 97.31엔까지 하락하였음.
- 또한 2012년 11월 이후 일본의 대외 채권 투자자금은 서유럽과 중남미에 집중되었는데 향후 유로존 위기가 다시 부각되고 환율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대규모 서유럽·중남미 채권의 매도가 발생할 수 있음.¹⁾
 - 슬로베니아의 구제금융 신청, 이탈리아의 정치적 불안 등으로 유로존의 위기는 상존하고 있어 이러한 위기가 부각될 가능성이 있음.

■ 한편, 일본 생명보험회사들의 해외 채권 투자는 소규모-일회성 투자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도 있음.³⁾

- 전문가들은 일본 대형 보험회사의 포트폴리오 변화는 매우 완만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장에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지는 않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일본 보험회사들은 같은 조건하에서는 일본 국채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일본 국채 금리가 상승할 경우 빠르게 일본국채 중심의 포트폴리오로 복귀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일본은행이 2년 내 물가 2% 달성을 목표로 정책을 실행하고 있어 일본 보험사들은 저금리 환경이 길게 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음.

(WSJ, 국제금융센터, Reuters 등)

2) 국제금융센터(2013. 4. 18), “일본의 금융완화 이후 유로존 국채매입 증가와 평가”.

3) 일본생명보험협회.